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김 현 선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巨食性의 의미 연구
- 신화, 당본풀이, 전설을 중심으로 -

2002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종 국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巨食性의 의미 연구
- 신화, 당본풀이, 전설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현 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2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종 국

박종국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2002년 12월 일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사검토	3
3. 연구방법	6
II. 제주도의 지리적·자연적 환경	8
2.1. 제주도의 위치, 면적	8
2.2. 제주도의 지질, 기후	9
2.3. 제주도의 역사적 배경	10
III.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巨食性의 구체적 검토 ...	11
3.1. 거인신화	11
3.1.1. 설문대할망	11
3.1.2. 선문대할망	13
3.2. 당분풀이	13
3.2.1. 송당분향분풀이	15
3.2.2. 내왓당천즈또마누라분풀이	19

3.2.3. 케네깃당본풀이	20
3.2.4. 세화본향당본풀이	22
3.3. 전설	23
3.3.1. 힘 센 노비 전설	23
3.3.1.1. 새샘이와 정운디	23
3.3.1.2. 막산이	25
3.3.1.3. 막산이2	27
3.3.1.4. 오찬이래	27
3.4.2. 아기장수유형 전설	30
3.4.2.1. 흥업선	31
3.4.2.2. 날개돋친 밀양박씨	34
3.4.2.3. 오찰방	37

IV.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 . 40

4.1. 거인신화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	40
4.2. 당본풀이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	42
4.3. 전설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	44

V. 결론 47

<참고문헌>	50
영문초록	52

국 문 초 록

제주도는 많은 설화가 구비전승되는 공간이다. 제주도는 지리적 위치를 비롯한 전승공간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제주도 특유의 고�형(古型을) 유지하며 전승되고 향유되었다.

일반적으로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된다. 제주도에는 신화로서 거인신화인 선문대할망이 있다. 또 무속신화로서 본풀이가 전해진다. 그리고 역사, 인물, 신앙 등에 관한 많은 전설들이 존재한다. 이들 설화들을 구성하고 있는 모티브 가운데 본고에서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식성(巨食性)’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많이 먹는다는 뜻으로는 다른 용어도 있겠으나 본고에서의 거식성(巨食性)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면서 서사 안에서의 역할까지 포괄하는 의미이다.

신화, 당본풀이, 전설 자료들을 검토 각각에 나타나는 거식성(巨食性)의 의미를 고찰하였고, 다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을 추출하였다.

제주도 설화에서의 거식성(巨食性)은 공통적으로 주인공들의 특별한 능력을 담보해 낸다. 그러나 제주도 설화에서의 거식성(巨食性)은 주인공들의 비범한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특수한 환경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본토에서의 이격성, 역사적인 수난 등으로 인해 항상 궁핍한 생활을 하며 배고픔에 시달렸다. 제주

도 설화에 나타나는 거식성(巨食性)은 제주도 사람들의 이러한 삶의 반영이다. 그리고 그것은 곤궁한 삶의 반영인 동시에 삶의 힘겨움을 극복해 내려는 제주도 사람들의 강한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자료의 검토를 통해 설화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식성(巨食性)의 의미가 단순히 현실의 반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였다.

I. 서론

1. 문제제기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제주도 나름의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발전해 온 섬이다.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환경은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장주근은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면적, 일정한 인구 등을 제주도로 하여금 한국문화의 한 지방형(地方型)과 고형(古型)을 유구히 온존하게 보존시킬 수 있었던 요인¹⁾으로 보고 이들 조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장주근의 지적대로 제주도의 위치적 환경은 육지에 비해 특별한 고유의 문화를 갖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과 아울러 들과 바람이 많은 척박한 토양과 기후, 그리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도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제주도 설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고유한 제주도의 문화와 이를 형성하게 된 원인이 되는 조건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전설의 섬'이라고 일컫는다. 제주도를 표현한 이 짧은 말 한 마디를 통해 우리는 이 섬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많은 설화가 존재한다. 특히 제주도 신화의 경우는 일반신화와 무속신화로 구비 전승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1)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5면.

하겠다.

신화 중에서 마고할미, 선문대할망 등은 제주도의 지형을 창조하는 신격으로 이해된다. 제주도의 무속신화를 ‘본풀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행되고 있는 巫俗祭儀(굿)의 일부분으로 노래 부르는 신성한 설화이다.²⁾ ‘본풀이’는 말 그대로 ‘근본을 풀어내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 근본이라는 것은 신의 출생과 성장, 좌절까지의 생활이며 내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신의 근본을 풀어내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안에는 제주도민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본풀이, 조상신 본풀이로 나누는데, 특히 당본풀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주도 본풀이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제주도에는 또한 많은 전설들이 존재하고 있고, 전설 자료를 살펴다보면 여러 모티브가 육지의 전설과 같은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지 전설과는 다른 양상으로 모티브를 수용하는 모습도 많다. 물론 전설이라는 것이 전승지역이나 구연자에 따라 없던 이야기가 끼여들거나, 있던 이야기가 탈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그것이 그들,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환경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³⁾ 이러한 예는 ‘아기장수 유형’의 설화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제주도 설화의 자료를 읽다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신화나 전설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거식성(巨食性)의 면모이다. 이것은 물론 제주 설화의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모티브는 아니다. 그러나 당본풀이와 많은 인물전설에서 등장하는데 그 모티브가 구

2)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5면.

3) 강진옥, <說話의 傳承과 變異>, <<韓國說話文學研究(上)總論>>,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303면에서 ‘변이는 전승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편으로서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다. 창조적인 화자에 의한 적극적 변이는 설화의 창조적 전승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하였다.

현되는 양상이 당본풀이와 전설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데에 특징적인 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거식성(巨食性)으로 인해 사회적 질서 속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이탈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이탈이다.

요컨대, 제주도 설화는 섬이라는 한정된 전승공간 속에서 육지와는 다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제주 설화의 특성은 신화와 전설을 두루 거쳐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제주도 설화에 나타나는 그러한 공통된 의미이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서 주목하는 것이 당본풀이와 전설, 특히 장사전설에 나타나는 ‘거식성(巨食性)’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신화, 당본풀이, 전설이 두루 존재하고 있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설화 속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이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 거식성(巨食性)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 제주도 설화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제주도 설화는 많은 자료가 존재하면서 육지 설화에 비해 갖는 특징적인 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구비문학 전공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제주 출신의 학자들 또한 제주도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제주도 설화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현길언은 제주도 설화 중 인물전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주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현하려는⁴⁾ 노력을 하였다.

4)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17면.

이 연구는 당본풀이와 장사전설(壯士傳說)을 제주도의 인물이라는 바늘을 가지고 한데 꿰어 살핀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현길언에 따르면 당본풀이는 각 마을의 당신들의 내력담이면서 제주 사람들의 내력담이 된다⁵⁾. 그러므로 각 당의 당신들은 신으로 존재하며 한 편으로 인간, 제주 사람의 모습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장사전설은 제주 사람들의 좌절과 저항의 삶의 양식을 구체적인 인물들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⁶⁾ 즉 현길언은 그의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설화에서 찾을 수 있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의 현대적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거식성(巨食性)’이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또 현길언은 <전설의 변이와 그 의미>⁷⁾에서 ‘아기장수형 전설’을 연구하면서 본토 설화에 대해 제주도 설화가 갖는 특성을 설명하면서 제주도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자연적 특수성 때문에 이 지역에 살아왔던 민중들의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⁸⁾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길언의 연구는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제주도 전설의 특수성을 찾아내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김현선은 최근의 연구⁹⁾에서 케네깃또의 식성을 언급하면서, 케네깃또의 거식성(巨食性)은 뛰어난 영웅적 능력을 담보하는 것이고,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제주도 당신들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¹⁰⁾이라고 하였다. 역시 당신들의 환경에 주목하면서 거식성(巨食性)이 비범한 능력을 담보하는 장치라고 보았다.

5) 현길언, 앞의 책, 28면.

6) 현길언, 앞의 책, 199면.

7) 현길언, <傳說의 變異와 그 意味>-제주 아기장수형 전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1979.

8) 현길언, 위의 논문, 290면.

9) 김현선,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바다의 세계>-<케네깃또본풀이>를 예증 삼아, 2001, 미발표.

10) 위의 논문, 3면.

권태효¹¹⁾는 거인신격의 성격을 논의하면서 대식을 거인신격의 면모를 보이는 화소 중 하나로 보았고, 신격의 거인성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화소¹²⁾라고 하였다. 제주도 설화에서는 선문대할망이 거인으로서 이러한 거식성(巨食性)의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이 대식 화소가 제주도의 장사전설에서 후대형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¹³⁾에서 그는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인 <세경본풀이>의 중심인물 중 하나인 정수남이의 거식성(巨食性)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수남이가 보이는 거식성(巨食性)은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즉 천한 종의 신분인 정수남이가 나중에 목축신으로 좌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수남이가 신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이미 그의 거식성(巨食性)과 마소를 잘 다루는 기술 등의 비범한 능력에서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임홍선은 종의 신분으로 많이 먹고 일 잘하는 장사가 등장하는 전설을 ‘奴僕壯士傳說’로 보고, 식성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장사들의 모습을 제주도민들이 가난한 실상과 이에 대한 좌절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⁴⁾ 이 연구는 전설을 통해 그에 반영된 제주도 사람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길언의 연구와 비슷한 시선으로 제주도 전설을 바라보고 있다.

이상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제주도 설화에 등장하는 거식성(巨食性)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런 거식성(巨食性)의 면모가 비범한 능력(당신들의 영웅적인 능력, 노복들의 괴력 등)을 담보해 낸다는

11) 권태효, <<巨人傳說의 傳承樣相과 變異類型 研究>>,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1997.

12) 권태효, 위의 논문, 52면.

13) 권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민속학회, 1999.

14) 임홍선, <濟州道 傳說에 드러난 濟州道民의 意識 研究>-傳來傳說을 中心으로-, 논문집13, 제주교육대학교, 1983.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거식성(巨食性)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본풀이나 설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식 모티브가 갖는 의미에 대해 언급한 정도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도 설화에서 ‘거식성(巨食性)’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 설화가 갖는 특징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연구에 앞서 거식성(巨食性)의 용어규정이 필요하겠다.

많이 먹는다는 뜻으로는 대식이나 과식 등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본고에서의 거식성(巨食性)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면서 서사 안에서의 역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거식성(巨食性)’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제주도 설화에 나타나는 거식성(巨食性)의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제주도 설화가 갖는 특징을 밝혀 내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가 전승되고 향유되는 공간인 제주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먼저 제주도의 환경과 역사적 배경, 제주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지금까지 350여 편이 조사되고 보고되었다.¹⁵⁾ 당신본풀이는 간단하게 신의 계보와 이름과 직능 등을 나열한 짧은 것과는, 서사구조를 갖추고 설화의 형태를 갖춘 것들이 있다. 이렇게 형태를 갖춘 당신본

15) 박진태, <<濟州道 堂神本풀이 研究>>, 대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위 논문에서 연구자는 359편의 당신본풀이들을 텍스트로 삼아서 당신본풀이의 계통과 유형을 분류하고 서사구조를 분석하였다.

풀이는 제주도 전체에서 70~80여 편이 전해진다. 본고에서는 제주도 당신본풀이 전체를 살피지는 못하였고 일정한 설화의 형식을 갖춘 당신본풀이 자료 몇 편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전설 자료는 주로 제주도의 인물전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인물전설, 역사전설, 지역전설 등 많은 전설이 분포하지만 제주도의 인물전설은 육지에서 전승되는 전설과는 다른 면모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살펴봄으로써 제주도 전설이 갖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를 밝혀내고 아울러 개별 텍스트의 밝혀진 의미를 종합 고찰하여 제주도 설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면을 밝혀 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제주도의 지리적·자연적 환경¹⁶⁾

2.1. 제주도의 위치, 면적

제주도는 아시아 대륙의 한반도 최남단 너머 북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최대의 섬으로 9개의 유인도를 포함한 60여 개 부속 도서와 함께 행정구역상 가장 작은 도(道)를 구성하고 있다. 위도 상으로는 동경126°58', 북위33°12'에서 33°34' 사이에 있으며 서울과는 452km, 부산과는 297.6km, 일본 쓰시마와는 240km 떨어져 있다.

제주도의 총면적은 1,826km² 동서73km, 남북41km의 타원형으로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일주도로의 길이는 182km이다. 제주도의 총인구는 2001년 말 현재 5만7,964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남성은 27만 1,907명이며, 여성이 27만 6,057명으로 여성이 약간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 위치와 면적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양상을 보이고 도(道)로서 가장 좁은 면적을 보임으로써 지역적으로 한정성과 협소성을 보인다.

특히 바다에 의해 야기된 지리적 고립성은 제주도민의 생활권을 섬 안으로 한정지어 대부분의 생활을 섬 속에서 영위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제주도의 고립성과 다른 섬에 비해 큰 면적은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또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16) 제주도의 역사는 아래의 세 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제주도 편, <<제주도지>>(제1권), 제주도, 1993.

북제주군 편, <<북제주군지>>, 1987.

서귀포시 편, <<서귀포시지>>, 1988.

2.2. 제주도의 지질, 기후

제주도의 지질은 퇴적암 층과 현무암, 조면질암산암, 조면암 등의 화산 암류와 기생화산에서 분출한 화산 쇄설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지방의 점사질 토양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흑갈색의 화산회토로 덮여있다. 그리고 지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3°~ 5°의 매우 완만한 경사이며 남북사면은 5°정도로 약간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난대성 해양성 기후이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계절성 기후이다. 기온은 연중 따뜻하며 연평균 14.6°C이며, 가장 더운 여름이 25.9°C, 가장 추운 1월이 4.5°C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교차가 적다. 연강수량은 1530ml로 전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며, 남제주 지방은 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다. 눈은 해안지대에서는 쌓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한라산 기슭에는 이듬해 봄까지 녹지 않는다. 또한 제주에는 바람이 그칠 날이 없는데 연평균 풍속은 4.8m/sec이며 겨울철에 특히 바람이 차고 세다.

제주도의 척박한 토지 조건과 태풍의 길목의 위치한 입지는 제주도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힘든 싸움을 치를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주도 사람들은 초월적인 힘, 또는 초월자에 기원하는 무속적인 생활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의 지질과 기후는 제주도에 신화와 전설이 많이 분포하게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질, 기후적 조건 때문에 제주도에 기근이 많이 발생한 것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제주도는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본토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여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특히 잦았는데 이런 이유로 이에 대항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모습

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신화와 전설로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 볼 수도 있다.

2.3. 제주도의 역사적 배경

제주도 역사의 기원은 석기시대로까지 올라가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주로 혈거 생활을 하였다. 제주도에 언제 원시국가가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476년 4월 ‘탐라국이 특산물을 바쳤으므로 임금이 기뻐하여 그 사자에게 은술이라는 벼슬을 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탐라라는 고대국가가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탐라국은 고려 숙종 10년(1105)에 탐라라는 국호가 폐지되어 탐라군으로 고쳐지고 중앙에서 직접 관원이 파견되어 민정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후 고려가 원의 침략을 받아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되자 이에 항거하던 삼별초가 제주도를 최후의 거점으로 삼아서 대몽 항전을 전개하였다.

원종 14년(1273)에 김방경이 원나라 군사와 함께 삼별초를 평정하였는데 이때부터 약 20여 년 간 탐라는 탐라총관부를 통해 원나라의 직할지가 되며 약 100년 간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다.

충렬왕 20년(1294)에 원은 탐라를 고려에 돌려주었는데 그 이듬해에 고려에서는 다시 ‘제주’로 고치고 목사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본토의 문화가 제주로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탐라국이 붕괴된 12세기 초부터 이조 말에 이르기까지 8세기 동안 이곳의 행정을 맡았던 목민관(牧民官)의 수는 약 500여 명에 이르는데, 그들은 거의가 수탈과 압제의 탐관오리들이었다. 한마디로 제주도는 행정부재(行政不在)의 땅

이었다. 그러기에 민란이 계속되었는데, 이는 바로 제주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¹⁷⁾

제주도 사람들은 자연적 조건과도 싸우면서 한 편으로는 위와 같이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탄식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을 보여왔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17)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15면.

Ⅲ.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구체적 검토

3.1. 거인신화

3.1.1. 설문대할망

우리가 옛날 들으니까, 설문대할망이 키도 크고 심도 썩고 호여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착발은 사라봉에 디디고 혼착발은 저디 물장오리라고 거길 디디여서 신것물에 서 빨래호다가, 산것물에 빨래호젠 구박호단 벗어지영 털어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략)

설문대하르방이 있어났쥬. 설문대할망이 이신디 하르방이 웃입니까. 할망이 이시민 하르방이 잇쥬. 하르방이 잇다가,

“께기가 꼭 먹고 싶다.”

고, 할망이 곧는 말이,

“한라산 꼭대기에 강 잇다가 나 말대로만 흡서.”

갓어. 갓는디 하르방 보고,

“당신이랑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대변 보멍 그것으로 냥을 막 패어 두드리멍 오즘을 작작 굴집서. 굴기면은 산툃이고 노루고 다 잡아질 텨쥬.

아닌게 아니라, 이영헛더니 산툃이고 노루고 막 도망가. 할망은 자빠전 누워 잇엇덴. 비벼롬 피호젠 호단 그것들은 할망 그디 간 돈딱 곱안. 곱으니 이젠 그것들 잡아 단 호 일년 반찬 호연 먹엇덴 호여.

제주시 오라동 동카름, 1980. 11. 23 송기조, 남 74.18)

18) 대계9-2, 710-714면.

3.1.2. 선문대할망.

옛날 선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빨래를 하려면 빨래를 제주시 앞바다의 관탈섬에 놓아 발로 밟고, 팔은 한라산 꼭대리를 짚고 서서 빨래를 발로 문질러 빨았다 한다.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 놓으니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을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에는 명주 1백통이 든다. 제주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으나 99통밖에 아니 되었다. 그래서 속옷은 만들지 못하고 할머니는 다리를 조금 놓아 가다가 중단하여 버렸다.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 신촌리 등 앞바다에 있다 한다. 바다에 흘러 떨어진 간 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1975. 2. 28 성산면 시흥리 양기빈(남, 69세) 제공¹⁹⁾

애월면 꼭지리에 흡사 솔덕 모양으로 바위 세 개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다. 이것은 선문대할망이 술을 얹혀 밥을 해 먹었던 곳이라 한다. 할망은 밥을 해 먹을 때, 얹은 채로 애월리의 물을 떠 넣었다 한다.

1975. 12. 19 한경면 고산리 이자영(남, 77세) 제공²⁰⁾

3.2. 당본풀이

당본풀이는 제주도에 존재하는 세 유형의 본풀이, 즉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 본풀이 중에서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

19)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77, 27-28면.

20) 현용준, 위의 책, 32면.

고 있다.

일반신본풀이는 특정 지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어떤 심방에 의해서든 구현되는, 무속의례에서 일반신의 내력을 풀어내는 서사무가이다. 일반신본풀이는 대부분 장편의 형태를 갖는데 여기에는 민담의 모티브를 풍부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불전설화를 그대로 수용하고²¹⁾ 있기도 하다.

조상신 본풀이는 혈연으로서의 조상에 관한 본풀이가 아니라 한 집안 내지 일족의 수호신을 말한다.²²⁾ 이는 특정 집안에서만 전승되는 본풀이이기 때문에 일반신본풀이나 당신본풀이에 비하여 일반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들에 비해 당신본풀이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에 관한 내력을 풀어내는 본풀이로서, 일반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를 통해서 갖지 못하는 마을사람들 간의 유대감 혹은 결속력을 갖게 한다. 현용준은 제주도의 여러 당신에 대한 본풀이는 당시의 신앙, 사회와 경제 생활의 현실적 사실들이 형상화된 것²³⁾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신본풀이에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상이 진실되게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본풀이는 제주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삶을 새로이 개척해 나아가는 과정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제주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당신본풀이는 신화로서 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의 삶이 투영된 거울로서의 기능까지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²⁴⁾

21)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45면.

22)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11면.

23) 현용준, <巫俗神話 본풀이 形成>, 국어국문학26, 국어국문학회, 1963, 125면.

24)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26면에서는 현용준의 <巫俗神話 본풀이 形成>을 인용하여 당신본풀이에서 당신이 마을에 좌정하면 그 마을 대표적인 성씨들을 모아 자신의 좌정을 알리고 봉제(奉祭)할 것을 당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바로 이때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 본풀이에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제도, 풍습, 관습들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

당신본풀이에 제주도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²⁵⁾고 할 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식성(巨食性)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한층 더 용이한 접근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3.2.1. 송당본향본풀이(구좌면 송당리)

웃손당은 금백조 셋손당은 실령조 맬손당은 소천국과 백조할망은 서울 남산 송악산서 솟아오던 임정국떡님애기 소천국과 가부간 삼안 부배간이 슬럼살 때 아들 팔성체가 떨어질 듯 막동이는 배였구나. 유동이는 여근애긴 밥을 둘라 어린애기는 것을 둘라. 유봉이굴왓 돌아보니 벨진 발도 아흔아홉세역 줄진 발도 아흔아홉세 발갈아 지낼 때 성진산이 발갈째는 늦은독정하님 정심허던 가고 「머들 우에 놓아두엄 가라」 삼진산은 발가는 님 좃안 「정심이나 흐썰 달라」 삼진산이 정심 안내니 「제반삼솔지던 뜰땀」 흐실 때는 문닥 잡수고 건났더라.

소천국 발갈단 나 농엘 뜰려먹나 나 농엘 뜰려먹언 나빠지난 어욱 솟은 못에 늪 농애 시난 십어단 뜰려먹언 나빠지난 어욱 솟은 못에 늪 농애 시난 십어단 뜰려먹언 백조할마님은 「눔 배우지오」 소천국 발 가는디 가고 보저 소천국 발 가는데 가안보니 뱃부기로 발 밀련 발 갈암꾸나. 「농애는 어되 붉되가?」 「농애는 내가 뜰려 먹었노랜」 흐난 백조할마님 말씀흐되 「농애는 내 먹은 건 여우상서가 되지마는 늪이 농애 뜰려 먹어서니 쇠도독 몰도독 아니되냐?」

애개데래 빈내간다. 성정을 나누서 할망 우에 복인즈재 가시난 부배간이 빈해흔 것이 슬럼 분산이 되었구나. 오백장국 똬님애기 호첩하고서 유봉이굴왓 들어간다.

들을 감안하여 볼 때 당신본풀이는 신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인간들의 이야기로서 전승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25) 현용준, <濟州道 堂神話>,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115-135면에서는 신화들이 과거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체험의 소산임을 전제하고, 제주도 본풀이의 내용 요소들을 풀어내면서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과 관련지으려 하였다.

해낭굴침발 들어가고 살더니만은 말жат아들 배고난 아들 살아신지 일곱술 나는 해삼천스당에 붙였더니 「아방 없는 호로죽식!」 어명신되 오란 「어명아 우리 아방 어디 갔수까 날 곱아 아방 없는 호로 죽식 합대다」 「느내 아방 느 술아날 때 우리 부배간 이 빈내하고 슬럼 분산하고 해낭굴침발 간 살암꾸나」 망동산으로 올라가져. 올라가서 해낭굴러래 쫓겨보니 아방신디 간 후젠 앓어노난 아바님 쉬엄을 심음대다. 「이 죽식 괴썸흔 죽식」 하더라. 어머니의 돌아간 안테레 앓이난 어머니م 젓가슴 두드립데다.

「아방 없는 호로죽식 배운되 없다」 부되 귀양 전대 라련한다. 유황황제국에 들어가 무낭우 상가지에 걸렸더라. 「어떤일로 오랐더나?」 「강남천죽국은 조정변난이라 세벤 막으레 가단 들었수다」 「큰똥로 가라, 아니간다. 셋똥로 가라, 아니간다. 「말жат똥방으로 들어가라」 세류유정(細柳有情) 밑바지를 허우덩쌍 웃언 들어간다.

오침방상을 출려들이니 아니먹으니 「어떤 일이 됩내까?」

「나는 소국의 살지라도 괴기도 장군 밥도 장군 술도 장군 먹읍내다」 「사위손 하나 못대접허리야, 혼돌 두돌 연석돌 먹으난 동창 서창 다 비여간다. 「나 국이 망한다. 어서 나 국으로 가라」 아니가니 말жат똥애기가 말썸흔되

「아바님아 아바님아 여성은 보면 십팔세가 불가외니 혼되 놓양 띄와봅서」

한디 놓안 띄우난 강남천죽국 백모래7에 간 올렸구나. 가유서 포유서 돌아보니 무쇠설갑 올렸더라. 내동안 끄서드련 갑세무턱하고 강남천자국 츄스님이 절홉대다. 무쇠석합 열여지니 옥같은 도령님 앓았구나. 옥같은 애기씨 앓았구나. 「어느 국에 사옵내까?」 「조선국은 웃손당 백조아들 말жат아들 당합내다」 「어찌 읍대까?」 「강남천죽국 세변난다 허여 세변 막으레 오랐수다」 「명녕 없이 세변 나라?」 「내일날광 모릿날 봅서 세변 읍내덴」 허였구나.

닐 모릿날은 세변 오니 「어서 소천국 세변 막아줍서」 목 둘 들은 장수 이배 냉겨 세변 막고 들어온다. 「대적 지적 어느국드 좃이 하오리까? 제주도서나 호오리까?」 「도서도 말고 상선 지언 배 지어 주면 아방국 어명국 보키엔」한다.

소섬 진질각으로 들어온다. 좁어 낮어 종달리 주머니개 어서 설설 들어온다. 어서 조선국 손당으로 올라갈제 아큰다랑쉬특 한다랑쉬특 올라가니 늦인득정하님이 말썸흔되 「상전님아 상전님아 일곱술에 죽으렌 띄와분 상전님 오람수다」 「아이고 아기 어찌

불변하라』 아버님은 알손당 고분이모루 고부레가고 어머니는 손당머리 큰폭낭 알로 가고보니 시상 병환 돌아간다. 설혼 성님내가 앉았구나. 큰성님은 거머문곡성. 셋성님은 대정 광정당. 싯찰성님은 정의 시선당. 닛차성님은 성안 내왓당 들어삼서. 다섯찰성님은 집녕 피내깃또로 들어삼서. 여섯차는 갓머리 명동국 들어삼서. 일곱차는 드리산싯또로 들어삼서. 여덟차는 남우몸도 저 토산 다위시면 토산안디 좃이호기로 갓싯내다. 토산 안채 좃이호레 가기로 가고 이내몸이 근당호였수다. 웃손당 백조할마님은 본산국 다 풀었읍내다.²⁶⁾

이상은 구좌면 송당리의 ‘송당본향당 본풀이’이다. 특별히 송당본풀이의 구송본 전문을 인용한 것은 이 본풀이가 제주도 당신들의 조종에 관한 것으로서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당신들이 소로소천국과 백जू도의 자식신들이기 때문이다. 송당본풀이의 내용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백조할망과 소천국은 부부가 되어 많은 자식들을 낳고 살게 된다.
- ② 소천국은 생계를 위해 부인의 권유로 농사를 짓다가 소를 잡아먹고 이를 계기로 이혼하게 되어 살림을 분산하게 된다.
- ③ 아이가 태어나 놀림을 받던 중 아버지를 만나게 되나 불효하다 해서 무쇠석감에 넣어 용왕국으로 유배를 시킨다.
- ④ 용왕국에서 사위가 되나 거식성(巨食性) 때문에 쫓겨나 강남천자국으로 이른다.
- ⑤ 강남천자국의 변란을 진압하고 공을 세워 제주도로 입도하게 된다.
- ⑥ 버린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한 부모들이 본향당신이 되고, 형들도 각각 본향당신으로 좌정한다.

26)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14-217면.

이 신화에서 기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식성에 의한 것이다. 기본적인 구도는 米食인 女神과 肉食인 男神 간의 갈등이다. 그리고 육식성인 남신은 거식성(巨食性)까지 먹고 있다. 육식성을 지닌 남신은 여신과의 결혼을 통하여 잠시 육식을 버리고 미식을 택하나 결국은 본디 식성으로 회귀하고자 한다. 이것은 남신이 지니고 있는 수렵목축신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²⁷⁾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남신은 추방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같은 소천국의 거식성(巨食性)은 그의 아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난다.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제주도 당분풀이가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삶의 방식이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소천국과 아들신이 보이는 거식성(巨食性)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들신이 지니는 능력으로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들신은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용왕국 말젓말의 사위가 된다. 비록 거식성(巨食性) 때문에 용왕국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만 강남천자국의 변란을 진압하고 제주도에 입도한다. 이러한 아들신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비범한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비범한 능력을 담보해 내는 장치가 바로 거식성(巨食性)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식과 육식의 갈등과정에서 쫓겨난 육식성을 지닌, 즉 수렵신적 존재인 소천국과 아들신이 지니는 거식성(巨食性)은 어떠한 비범한 능력을 담보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문제는 농경사회로의 전환의 연장선에서

27) 권태효는 <세경본풀이>와 <송당계본풀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하세경으로 목축신으로 좌정하는 정수남이와 소로소천국의 식성 및 신격에 관하여 비교, 고찰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소로소천국이 지니는 수렵목축신적인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권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민속학>>, 민속학회, 1999.)

생각해 봄으로써 해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²⁸⁾ 즉 거식성(巨食性)의 문제는 노동력의 문제와 관련하는 것이다. 여성신의 다산이 농경의 풍요를 바라는 것과 같은 위치에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남성신의 거식성(巨食性)은 많이 먹는 만큼 일하는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실제로 많이 먹고 큰 힘을 발휘하여 일을 할만한 처지가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²⁹⁾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쫓겨나 방황하는 당신들의 모습에 궁핍한 자신들의 모습을 대입시켜 노래하면서 그가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돌아오듯이, 그들의 삶이 평탄한 길로 회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궁핍한 그들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장치로써 거식성(巨食性)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2.2. 내왓당 천즈또마누라 본풀이(제주시 용담동)

28) 문무병, <<濟州道 堂神仰 研究>>, 제주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1993, 44면의 당신의 '職能과 單位'에 따르면, 狩獵神은 마을이 형성되기 이전, 한라산을 떠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던 신이다. 肉食性의 將師型 신이다. 그리고 牧畜神은 초기 마을의 형성단계에서 狩獵神은 바다를 건너 渡來한 女神과 結婚하고 마을을 이룬다. <당본풀이>는 신들의 결혼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때문에 한라산을 떠돌아다니던 수렵신은 점차 家畜을 관장하는 牧畜神으로 변모한다. 또 牧畜神은 '소를 몰아 농사를 짓는' 農耕神의 職能도 지니게 된다.

29)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55면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먹는 욕망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남보다 많이 먹는 특수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남보다 많이 먹어 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욕망의 극대화를 나타낸 것이며, 그런 욕망을 버리지 않음은 현실과의 화합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소천국은 정심이나 먹을카 허연 간 보난 다 들러먹언 돌아나 부렸구나. 홀수웃이 밧 갈단 쉼 손콰으로 잡아네 멩게낭자왈 불에 구어가멍 익어시나 혼 점[一點] 설어시나 혼 줌 다 먹어도 초요길 멀리질 못홉네다. 묵은 각단밧데레 보니, 검은 암쉐[牝牛] 혼 머리 놈의 게 기염시니 ‘에, 이놈이라도 먹아사주.’ 심어단 뜯려 먹읍네다. 쇠머리도 돌이요, 쇠가죽도 돌을 밧담 우의 걸쳐노난 그제사 요기를 멀립네다.³⁰⁾

말жат똥아기광 네웨간(內外間)을 땃아놓고, 백메[白飯[백들레 백시리 도임상(到任床)을 출려 가도 눈도 아니 거듬떠 보난, 요왕국이 말을 흐웨

“무엇을 먹느냐?”

“쇠[牛]도 전머리 득[鷄]도 전머리 먹읍네다.”

“내 재간을 가지고 사위 하나 못맥이라.”

허연 쇠도 전머리 득도 전머리 석돌 열흘 맥여가니, 동창궐(東倉庫)도 비여간다. 서창궐도 비여간다.³¹⁾

3.2.3. 궐넹깃당본풀이(구좌읍 김녕리)

소천국이 밧을 갈단 베가 고프난 정심이나 먹저.

보니 혼 술도 웃이 몬짜 들러먹고 돌아나부렸구나. 소천국은 시장하여노니 홀수웃이 밧갈던 농웨(農牛)를 뜯려 죽여 잡아가지고 새비남 적고지에 괴기를 궐명 구워 먹웨, 초요길(初療飢) 못 멀려 묵은 각단밧데레 바래여 보니 가망혼 암쉐[牝牛]가 이염시니 그 놈을 심어다가 잡아 먹으니 요기를 멀렸더라.³²⁾

죽은똥이 상(床)을 츠리웨 칠첩반상궐 출려 들어가 드리니 눈을 거듬떠바래질 아

30)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300면.

31) 현용준·현승환, 위의 책, 304면.

32) 현용준·현승환, 위의 책, 320면.

니한다. 죽은딸이 말씀하네,

“조선국(朝鮮國) 장수(將帥)님아 뗏을 잡습네까?”

“내 국(國)은 소국(小國)이라도 돼[豚]도 전머리를 먹고 쇠[牛]도 전머리를 먹고 한다.”

아바님전 여주오니 요왕국대왕(龍王國大王)이 말씀하시네,

“내 기구를 가져서 사위손 하나 못 데접하겠느냐?”

날마다 돼를 잡고 쇠를 잡아가니 동창(東倉) 서창(西倉)이 다 비어간다. 요왕국이 생각하니 사위손을 두어뵈당 요왕국이 망홀듯하다.³³⁾

내왓당본풀이와 궤네깃당본풀이는 송당본풀이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송당본풀이가 소천국과 백조할망이라는 부모신의 내력에 대해 자세히 풀어내고 있는데 비해 내왓당본풀이와 궤네깃당본풀이는 부모신이 죽은 후에 아들신이 좌정하는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현용준의 견해³⁴⁾에 따르면 父神神話와 子神神話を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들 당본풀이가 가지는 중점적인 특징을 요약하여 볼 때, 결국 이 당본풀이에서 거식성(巨食性)이 담고 있는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내 국(國)은 소국(小國)이라도 돼[豚]도 전머리를 먹고 쇠[牛]도 전머리를 먹고 한다.’는 궤네깃도의 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33) 현용준·현승환, 위의 책, 324면.

34) 현용준, <濟州道 堂神話考>,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91면에서는 이 父神神話와 子神神話가 따로 뉘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父神神話와 子神神話는 별개의 신화였는데 양자가 통합 계보화하여 정서되고 하나의 신화로 결구된 것이라는 것이다.

김헌선,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바다의 세계>-<궤네깃도 불풀이>를 예증삼아-, 미발표, 3면은 소로소천국의 대식성은 육식성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궤네깃도의 대식성은 본디부터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의견은 부모신의 내력담을 주로 다룬 송당본풀이와 자신의 좌정경위를 다룬 신화가 같으나 다른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강한 극복의지를 보여준다.

3.2.4. 세화본향당본풀이(구좌읍 세화리)

“술도 장군(將軍) 먹읍네다. 떡도 장군 먹읍네다. 밥도 장군 먹읍네다. 돛도 전머리를 먹읍네다.”

“투더럽다. 어서 나고가라. 우리와 동좌(同坐)하지 못하겠다.”

금상님이 할 수 옷이 뒷꼭디를 손으로 쓸명 올레로 나오라가니 백주님이 왔었다가 말씀하되,

“저레 가는 저 장수(將帥), 나하고 인간천상배필(人間天上配匹)이민 먹단 음식을 거절하고 천상배필 무어봅서.”

금상이 생각하니 그럴 듯하거든. 천주님전 들어가서,

“소장(小將)이 금일(今日)부담은 먹단 음식 거절하겠습네다.”

“뫏죽 쭈어 목 가시라.” 즈수지(燒酒)로 모욕(沐浴)하라. 즈청취(淸酒)로 모욕하라. 청감취(淸甘酒)로 염집하라.”

그 말대로 하고 백주와 부배간(夫婦間)을 무어 한 달[一個月] 두 돌 석 돌 열흘 백 일(百日)이 넘어가니, 피골(皮骨)이 상접(相接)하여 죽을 스경(死境) 당하여가니,³⁵⁾

세화당본풀이의 금상한집에 관한 대목이다. 금상님은 백जू도의 남편이다. 송당본풀이와 동계동일의 모티브의 신화다.³⁶⁾ 금상님의 출생은 하늘을 아버지로 하고 땅을 어머니로 한다. 그런데 금상님은 인간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제주도로 피난을 온다. 그것은 경직된 현실과의 대결에서 패배함을 뜻한다. 때를 타지 못한 불운한 인물인 날개 달린 아기장

35)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358면.

36)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98면.

수와 같은 신이다.³⁷⁾ 세화당본풀이에서 금상님의 식성은 또한 거식의 양상을 띤다. 그러나 인간계의 배필을 맞이하기 위해 그의 식성을 버린다. 그리하여 결국 ‘피골(皮骨)이 상접(相接)하여 죽을 스경(死境) 당하여가’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이것은 결국 당신이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데, 배고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된 모습이다.

3.3. 전설

제주도의 전설은 특별한 인물의 특수한 삶을 설명하거나, 제주의 원초적인 지형에 대한 은유적인 설명들이 많다.³⁸⁾ 제주도의 많은 전설들 중에서 본고에서는 특별히 인물전설을 그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자연전설, 역사전설, 신앙전설 등 다양한 형태로 제주도의 전설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역사전설로 분류되는 인물전설도 관원, 장사, 이인, 여걸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힘센 노비 전설’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아기장수유형 전설’을 살펴볼 것이다. ‘아기장수유형 전설’은 비록 거식성(巨食性)의 면모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힘센 노비 전설’과 함께 제주도 전설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37)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51면.

38) 제주도 편, <<제주도지>>제3권, 1993, 1332면.

3.3.1. 힘 쉰 노비 전설

3.3.1.1. 새샘이와 정운디

새샘이란 사람이 있었다. 몸집이 보통 사람의 두세 배는 되고 힘이 워낙 장사였다. 본래 천민 출생이어서 이집 저집으로 돌아다니며 종 노릇을 하고 살아보았으나 배가 고파 살 수가 없었다.

새샘이는 드디어 도둑놈이 되어 나섰다. 당시 목안(牧內 : 濟州)과 대정(大靜)의 교통로는 옷한길이었다. 이 양현(兩縣)의 경계가 되는 옷한길 목에 「넙은팡」이라는 곳이 있다. 여기에 굴이 하나 있는데 새샘이는 이 굴 속에 살았다. 그래서 이 길로 날라 가는 곡식을 다 털어 먹고, 육소장(六所場), 칠소장(七所場)의 마소를 다 잡아 먹곤 하였다.

민간의 피해는 말이 아니었다. 드디어 목사에게 진정이 들어갔다. 그러나 새샘이 힘이 워낙 세어 놓으니 목사도 쉬 잡아 낼 의견이 나지 않았다.

대정원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목사도 잡지 못하는 도둑놈을 잡아 올리라는 것이 좀 부당해 보였으나, 새샘이가 숨어 사는 넙은팡이 대정현의 경계이므로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대정 원님은 관내에서 가정 힘센 사람을 찾았다. 검은길(安德面 沙溪里) 정운디가 가장 힘이 세다고 추천되어 올라왔다. 원님은 곧 정운디를 불러 들었다.

(중략)

큰 수소 세 마리와 백미 닷 섬이 내려졌다. 그날부터 정운디는 쌀밥에 쇠고기로 힘을 돋우었다. 쌀과 고기가 거의 다 떨어져 가니, 정운디는 다시 원님에게 들어갔다.

“그걸로는 기운이 모지래니 다간 부릉이 하나만 호곡 쓸 열 말만 더 주십서. 먹어서 기운 출렁 허여 보겠읍네다.”

원님은 다시 요구하는 대로 쌀과 수소를 내리었다. 정운디는 이것을 다 먹자 다시 원님에게 들어갔다.

(중략)

굴 안에는 소를 잡아다가 다리며 대가리며 한 구서게 수북히 쌓여 있었다.

“성님 시장허영 못 살쿠다.”

정운디의 말에 새삼이는 구석의 쇠 다리를 하나 잡아 던졌다. 정운디는 피가 득득 나는 쇠다리를 잡아 날 제로 뼈다귀까지 바삭바삭 다 씹어 먹었다. 새삼이는 다시 다리 하나를 던져 주었다.

(중략)

한밤중이 지나자, 아니나 다를까. 새삼이가 어떻게 그 배를 꾸었는지, 옥방(獄房)을 부수고 달려왔다.

“저가 잘못된 죄를 어떻게민 됩네까”

이렇게 말하면서, 순간 정운디는 장검으로 새삼이의 왼쪽 팔을 짝 갈겼다. 팔이 툭 떨어졌다.

“아, 흘 수 웃다. 내 운이 떨어졌다. 어서 잡아라.”

그제야 새삼이는 순순히 정운디에게 몸을 맡겼다는 것이다.

1975. 3. 3 中文面 中文里 金承斗(남, 62) 提供³⁹⁾

3.3.1.2 막산이

3백 년 쯤 전, 중문면(中文面) 중문리 무남밭 이좌수(李座首)네 집에 「막산이」라는 종이 있었다. 체구가 크고 아주 힘이 장사였으며 일도 잘했다. 선 사람이 먹을 점심을 한꺼번에 먹고 선 사람이 할 일을 혼자서 했다 하면 가히 알 만하다.

막산이는 배가 커 놓으니 항상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밤마다 동네 집에 들어 도둑질을 아니하는 날이 없었다.

(중략)

이좌수네 집(알침이라 한다) 뒤에는 「큰머들왓」이라는 이좌수네 밭이 있었다. 이 밭은 약 1정보쯤 되는 넓은 밭인데 어느 해 조를 갈았다.

39)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77, 177-187면.

가을이 되어 조를 다 베어 놓았는데 밤중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다.

“막산이야.”

“예.”

“빗방울이 똑똑하고, 저 밧디 졸 어떻흐느니?”

“거 느람지 더꺼시난 켜길치 아널 듯흐우다.”

“무스거?”

“ 비 왠지허연 묶어단 놀왓디 놀었우다.”

주인은 어이가 없었다. 그 새에 그 많은 조를 혼자 묶어서 운반해다가 가리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과연 조는 가리어 있었는데, 집 뒤의 팽나무에는 조 묶음이 주렁주렁 과일이 달리듯 매달려 있지 않은가. 이좌수네 집과 큰머슴들왓은 약 1백 미터쯤 떨어져 있고, 그 중간에 큰 팽나무가 서 있다. 막산이는 비가 올 것 같으니, 조를 묶으면서 그 팽나무를 넘겨 울타리 안으로 확확 던진 것인데, 그 조 묶음이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린 것이었다. 그러니 낱알은 얼마나 붙었을까 모를 일이다.

주인은 어떻게든 막산이를 먹여 살려보려 했지만 너무 배가 커서 힘겨웠다. 어느 해엔가 ‘넌 맥이지 못홀테니 다른 디로 가라’하고 집을 내보냈다.

그때 이름난 부자로 안덕면 창천리(倉川里) 배염바리 강(姜) 집이 있었다. 막산이는 이 배염바리 강씨 집으로 갔다.

(중략)

하다하다 배염바리 강 집에서도 먹여 살릴 수가 없어 막산이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막산이는 한경면(翰京面) 경(境)의 원(院) 곁에 갔다. 여기는 제주와 대정 간의 중요 교통로였다. 곡식을 나르는 소도 지나고 돈을 가진 손님도 지난다.

막산이는 여기에 숨어 살며서 지나가는 곡식 짐도 뺏아 먹고, 마소도 때려 잡아 먹고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굶어 죽었다. 막산이가 죽은 곳이라서 그때부터 이곳을 「막산이 구석」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1975. 3. 3 中文面 中文里 金升斗(남, 62세) 提供⁴⁰⁾

3.3.1.3 막산이2

안덕면(安德面)에도 그런 힘이 썬 무스(武士)가 이섯주. 정훈디엔 혼 사름이 이섯고, 오찰방이엔 혼 사름이 이섯는디, 그게 아마도 정훈디엔 혼 사름호고, 오찰방이엔 혼 사름이 혼 사름호고, 오찰방이엔 혼 사름은 막산이 후엿 사름이고, 흐데, 이 사름덜다 상당히 힘이 썬 사름인디, 막산이 처음은 그렇게 되어.

알침 종으로 사는디, 그 군산(軍山) 앞의 큰, 논이 진 논이주. 진 논인디, 그 큰 비가 오라 가지고 막 그만 물에 끄서네 메우는 딴 메와 불고, 끄시는 딴 끄서 불고 흐니, 역군(役軍)을 혼 오십 명 빌어야 이 일을 훌 테니까니,

(중략)

여흐네 아홉밧칩 스시엔 흐는 집이 인디, 그것이 큰 부잣집인디 그디 가, 가서 얻어 먹단 그디서도 버치난 맥이지 못흐연 다시 창천리 돌아 오란 살명 고지(高地), 쉼 많이 놓아 가지고 쉬 백 쉬(首) 씩 흐는 사름덜이 이시난 밤원 흐당 높은 낭 우이가그네, 텅에 멘들아그네 늙곡, 낮원 느려 오라그네 쉼 잡아 먹곡, 쉼을 잡아 먹었다민 칼로 잡으나, 가죽을 베끼는 게 아니라, 심어그네 그자 메어부찌민, 죽으민 거 훌은 낭 불 잘 살왕 걸치며는 그자 가죽채 흐썰씩 그자 꿰기 있는 데로만 먹곡, 어느 절에 베끼곡.

경 헤가난 소임제덜이 모다들언 총으로 마천 죽여 부러서. 경헤연 그디 물어 내부난 그덜 보고 ‘막산이구석, 막산이구석’

(후략)

1981. 4. 26 서귀포시 중문동 김재현(남, 85) 제공⁴¹⁾

40) 현용준, 앞의 책, 195-200면.

41)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27-33면.

3.3.1.4. 오찬이께

오찬이라 혼 사름이 성은 오(吳간)디, 오가고 이름은 ‘찬’이란 왜자 이름쫘 웨여난 모양인디. 오찬이라고 혼 사름인디, 힘이 좀 뒤 말홀 수가 웃쥬. 골으민 그짓말이엔 혼쥬. 어디 그렇게 힘이 씨라 이렇게 홀 정도지. 힘이 워낙 썩 사름인디.

(중략)

그게 종이라. 종놈. 놈의 집. ㄷ사리 중에라도, ㄷ사리는 내가 일흐당 그 집이 실프면은 난 달리 가서 다른 집이 가서 살갬다 혼주마는, 이진 내가 깡 발안 폰 거니까니 풀아분 거니까니 그 집의 종으로 들어간 거라. …… 이런디 그 종으로 가서 살다가 흥년이 지나까니 그렇게 힘 썩 사름이니 맥임도 보듯혼주게. 요새 뒤 우리런 사름은 멧십 여명 먹는 것을 혼 때에 먹게 웨는 거주. 그렇게 힘 썩 사름인디 흥년은 지고 혼니 맥일 수가 웃거든. 맥일 수가 웃으니까니, 종 문세 받은 것을 내어 주어부렸지.

(후략)

1982. 2. 5 대정읍 신평리 강용규(남, 81) 제공⁴²⁾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장사 전설은 ‘힘이 썩 노비’의 신분인 장사전설⁴³⁾과 평민의 신분을 가진 장사들에 관한 전설⁴⁴⁾의 두 가지가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본 전설은 ‘힘이 썩 노비 전설’이다. ‘힘이 썩 노비’ 전설의 경우

42) 앞의 책, 1008-1019면.

43) 제주도에 전하는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전설로는 ‘막산이’, ‘논하니’, ‘새샘이와 정운디’, ‘오찬이께’ ‘당팻당장’ 등이 있다. 이들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9-1, 9-2, 9-3과 <<제주설화집성>>, <<제주도전설>> 등에서 고루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거식성(巨食性) 때문에 쫓겨나 힘겨운 생활을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44)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전설로는 ‘오찰방’ 전설이 있다. 때로는 ‘날개달린 아기장수 유형’ 전설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노비형 전설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면, 이 전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뜻을 펴며 살아간다. 즉 소극적 저항이며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는 그들이 갖는 비천한 신분과 어떤 것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거식성(巨食性) 때문에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몰락한다.

서론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제주도는 지리적, 지형적 조건 때문에 매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도가 기근이 들어 구휼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눈에 띈다. 그리고 구휼미의 양 또한 적지 않아서 제주도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던가를 짐작케 한다.⁴⁵⁾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으로 궁핍한 생활이 지속될 때 가해지는 관리들의 貪虐은 民亂을 발생케 하였다.⁴⁶⁾ ‘힘센 노비장사전설’에서 거식성(巨食性)을 지

45) 대표적인 기근과 구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조선왕조실록CD-ROM, 서울시스템)

선조35년(1602) 봄 黃霧로 보리가 흉년이었으므로 한라산 갈대 열매를 먹었고 다음해는 메뚜기가 온 들을 휩쓸어 늦은 벼를 食害하고 7월에 大風이 있어 흉년이 되었으며 병마져 발생하여 사람들은 山竹實을 먹었다.

인조7년(1627) 큰 饑饉이 있어 조정에서는 3군의 비축미만 2만8,200여석을 풀어 구휼하였다. 동 10년(1632) 7월 메뚜기가 만연하여 벼를 食害하고 또 大風雨까지 있어 樹木이 꺾이고 가옥이 파괴되는 재해가 있었다.

영조40년(1764) 가을 홍수로 민가가 漂沒하고 百穀이 절종되었으며 다음 해 봄 큰 기근이 있어 죽은 사람이 1만여 명에 달하였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祭文을 親製하고 牧使로 하여금 慰靈祭를 하도록 하였다. 조정에서는 그 해 5월 3,000석 賑穀을 急送하여 구휼하였다.

정조18년 五穀이 大豊이 예상되다가 8월27일 태풍이 내습하여 가옥이 파괴되고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고 해일까지 있어 피해가 막심하였다. 10만명이 넘는 甲寅年 濟州道 인구가 乙卯年에는 3만명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많은 기록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거의 매해 풍수해와 기근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해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은 풍요로움 보다는 궁핍한 생활에 가까웠다.

46) 민란은 기록상으로는 의종 22년(1168) 11월에 처음 일어났다. 최척경의 후임으로 부임한 관리의 侵幅에 시달리다 못해 도민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다.(제주도 편, <<

년 노비들이 도적이 되는 것도 소극적인 민란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거식성(巨食性)이 태생적인 것인지라 인위적 조건인 관리들의 貪虐과 같은 위치에서 본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제주도의 전설이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노비가 도적이 되는 것을 소극적인 민요로 보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큰 힘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변변히 써지도 못한 채 항상 배고픈 종의 생활을 하다가 굶어 죽는 이들 이야기는 제주 당신(堂神)본풀이에서 볼 수 있는 배고픈 신들을 생각하게 한다.⁴⁷⁾ 앞에서 당신본풀이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당신본풀이가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을 적극 수용하였다고 하였다. 당신본풀이에서 보여지는 신들의 이미지, 즉 제주도 사람들의 모습이 ‘힘 센 노비장사전설’에서도 그대로 보여진다.

비천한 신분인 노비이면서 비범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갈등을 잉태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의 유형은 ‘아기장수유형전설’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과 유사하다. 즉 현실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능력을 타고난 탓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예시한 전설들에서는 거식성(巨食性)을 지닌 노비들의 비범한 능력이 잘 드러나 있다.

3.4.2. 아기장수유형 전설

아기장수유형 전설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좌절과 비극으로 파국을 맞이하는 대표적인 비극적인 작품이다. 주인공인 아기장수는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을 예고하지만 부모나 근처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제주도지>>제1권, 1993, 721면.

47)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166면.

다. 즉, 아기장수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변화에 대해 기존의 전통사회가 얼마나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아기장수유형 전설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분포를 갖는다. 아기장수유형전설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변모된 오늘날까지 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력이 짙긴 광포전설임을 알 수 있다. 이점에서 이 전설은 민중들의 고통과 절망적인 시대적 삶의 양상을 진지하게⁴⁸⁾ 담고 있다.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아기장수유형 전설은 본토에서 전해지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승된다. 본토의 아기장수전설이 전설의 본질적 속성인 비극적 결말을 보이지만, 제주도의 전설에서는 비극성이 극복된 모습을 보인다.⁴⁹⁾ 또한 지명전설로 고착된 본토의 아기장수형 전설에 비해, 제주의 전설은 한 인물의 생애를 이루는 삽화로서 인물전설이란 점도 특이하다.⁵⁰⁾

3.4.2.1. 홍업선

홍업선(洪業善)은 약 3백 년 전, 애월면 신엄리(新嚴里)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풍모가 예사 사람과 다르고 또한 힘이 세었다.

집안은 농사를 지었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아버지는 항상 짚신을 삼아 이 아들에게 팔아 오라고 하여 살림을 보태었다. 아들 업선은 꼬박꼬박 성안에 가서

48) 강현모, <아기장수傳說의 研究史的 考察>, <<說話文學研究(下)各論>>,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337면.

49) 예외적으로 <베락구릉> 전설과 <드릿장군> 전설의 경우는 본토와 마찬가지로 날개를 제거하고 바로 죽거나 관군에 의해 아기장수가 제거되는 형태이다.

50)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121-122면.

현길언, <傳說의 變異와 그 意味>,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1979, 295면에서 본토의 아기장수전설은 막연한 시대의 막연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지명전설로 고착되었음에 반해, 제주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인물전설로 정착하게 되었다.

짚신을 잘 팔고 왔다.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 안 되어 아들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차차 유심히 보니, 너무 빨리 성안을 다녀오는 것이다. 하루는 일부러 새 짚신을 신기고 성안에 가서 짚신을 팔아 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아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유심히 가늠해 보았다.

“이만 시간이면 성안에 도착할 때가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아들은 어느새 짚신을 다 팔고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일부러 모른 채하고는 아들 몰래 신고 갔던 짚신을 보았다. 새 짚신에 흙이 한 점도 묻어 있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는 더욱 이상히 생각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술을 빚어 놓게 했다. 술은 아홉 번을 고아 내어 굉장히 독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 업선을 불러 별미의 술이니 먹어 보라고 했다. 어린 아이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술을 몇 모금 마셨다. 얼마 못 가서 술기가 돌아 아들은 취해 잠이 들었다.

아버지는 가만히 아들의 옷을 벗기고 몸을 조사했다. 이게 웬일인가? 아들의 겨드랑이에는 좋은 명주가 휘휘 감겨져 있었고, 명주를 푸니 큰 새의 날개만큼한 날개가 나와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겁이 났다. 만일 이것을 관아에서 알면 역적으로 몰릴 것이요, 삼족이 멸할 게 분명하다. 아버지는 얼른 가위를 가져다 날개를 잘라 버렸다.

아들은 몹시 몸이 고단하다면서 일어났다. 몸 단장을 하려다가 날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한 일이라 감히 원망 소리를 못하였다.

그 후 업선은 전보다 기운이 없고 발랄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에 비하면 힘이 장사여서 누구도 그 힘을 당하는 자가 없었다.

홍업선의 묘는 현재 제주시 외도리 위쪽 사만이라는 곳에 있고, 매년 묘제를 지낸다. 현재 그의 9대손들이 살아 있다.

1959. 8월 濟州市 龍潭1洞 洪淳鈞(男) 提供⁵¹⁾

51) 현용준, <<제주도전설>>, 홍성사, 1977, 136-138면.

본토에서 전해지는 아기장수유형 전설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가난한 한 집안에서 아기장수가 태어난다.⁵²⁾
- ② 아이의 부모가 그 아기에게 날개가 달린 것을 알게 되었다.
- ③ 집안에서는 아기가 성장하여 역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죽인다.
- ④ 용마가 나타나 슬피 울다가 죽는다.
- ⑤ 용마가 죽은 자리에 용소 등이 생겼다.

홍업선전설은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아기장수유형전설 중 대표적인 전설이다. 홍업선전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홍업선은 애월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풍모가 남다르고 힘이 세었다.
- ② 홍업선은 짚신을 팔았는데 남다른 그의 행동을 아버지가 의심하여 잠든 사이 겨드랑이에 난 날개를 확인하였다.
- ③ 성장하여 역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술을 먹여 잠들게 하고 날개를 잘라버린다.
- ④ 날개가 잘린 후 힘이 줄어들긴 했지만 보통사람은 당할 수 없는 힘을 여전히 지녔다.
- ⑤ 홍업선의 묘는 현재 제주도 의도리 위쪽 사만이라는 곳에 있고, 현재 그의 9대손들이 살아 있다.

52)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176면에서 연구자는 본토의 아기장수유형전설을 수집하여 연구하였는데, '본토 전설에서 아기장수가 태어난 집안은 평범한 서민의 집안인데 이는 바로 평범한 서민의 집안에서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비범한 장수가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하였다.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비범한 장수의 출생은 이미 거부당할 운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두 전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토의 아기장수유형전설에 비해 제주도의 아기장수유형전설이 갖는 특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아기장수의 탄생배경과 날개의 발견과정까지는 흡사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극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죽음을 면할 뿐 아니라 보통사람보다 뛰어난 힘을 지닌 장수로서의 면모도 잃지 않는다. 아기장수전설이 갖는 비극성을 극복해 내는 모습이다. 본토의 경우는 폐쇄적인 사회적 현실에 대항하여 죽음을 통한 화해라는 소극적 양상을 보임으로써 비극성을 갖는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비범한 장수가 수용되기에는 폐쇄적인 사회이나 그 대응태도가 죽음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잘리고도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적극성을 보인다.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의 강한 생활력의 반영이다. 비범한 아이가 영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며 좌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뛰어넘어 생활에 편입시킴으로써 비극성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자세이다.

아기장수유형전설의 변이는 본토의 아기장수형 전설의 원형이 제주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비범한 장수를 기다리는 제주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 그 아기장수 모티브가 힘센 장사들에 접합되면서 신비성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도록 전설을 이뤄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⁵³⁾

3.4.2.2. 날개 든친 밀양박씨

지금부터 약 130년 전, 제주시 외도이동(外都二洞)에 밀양박씨(密陽朴氏) 부부가

53)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135면.

살고 있었다.

나이가 40이 넘도록 슬하에 일점혈육이 없어 허허 탄식하였다. 여기저기 정성을 드려 돌아다녔는데 그 덕인지 부인이 포태를 했다.

집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태기가 있어 10삭만에 아이를 낳으니 아들이었다. 아이는 보통 아이보다 훨씬 몸이 컸었다. 삼승할망(助産巫)이 아이를 받아 내어 목욕을 시키다 보니 아이 겨드랑이에 병아리 날개만큼한 날개가 돋친 것을 발견했다. 삼승할망은 순간 놀랐으나 말이 번지면 위험한 일이므로 모른 척하고 가버렸다.

아이는 날로 무럭무럭 자라났다. 날개도 날로 커 가서 아이가 앉고 기고 할 때가 되니 큰 새 날개만큼 되었다. 부모의 걱정도 날로 커져 갔다. 날개 돋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관가에서 알게 되면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이 멸할 게 분명하다.

어느 날 아이는 어머니가 없는 틈에 혼자 밖으로 뛰어 나갔다. 어머니는 가만히 아이 뒤를 밟아 가보았다. 아이는 그 마을에 있는 「나라소」라는 큰 소(沼)에 가서 날개를 벌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갔다 돌아왔다 하는 것이었다. 아마 날기 공부를 하는 성싶었다. 어머니는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 날 저녁 아버지는 아이가 잠든 새에 옷을 벗겨 보았다. 과연 커다란 날개가 겨드랑이에 돋아 있었다. 아버지는 얼른 인두를 달구워다가 아들의 날개를 지져버렸다.

그 후 아이는 다소 기운이 떨어지고 암전해졌지만 성장하여감에 따라 힘이 장사요 머리가 남달리 총명하였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장차 나라를 바로잡을 일꾼이 될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날개를 지져 버린 자국이 아물지 못하고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 여러가지로 보약을 써 보았지만 효험이 없어 결국 스물 아홉 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금 그 무덤은 의도1동에 있는데 그 자손들이 별초하러 갈 때마다 이 조상의 일을 이야기하며 아쉬워한다.

1959.8 濟州市 外都洞 朴龍河(男) 提供⁵⁴⁾

54) 현용준, <<제주도전설>>, 홍성사, 1977, 171-173면.

날개돋친 밀양박씨 전설은 아기장수유형전설의 본토형이 제주도형으로 변이 되는 과정에 놓인 형태로 볼 수 있다.⁵⁵⁾ 전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밀양박씨 부부가 늦은 나이에 치성을 드려 아이를 얻었다.
- ② 아이는 날개가 있었는데 이는 부모의 걱정거리였다.
- ③ 아버지가 인두로 날개를 지져버렸다.
- ④ 날개가 없어졌지만 남다른 힘과 총명함을 보였다.
- ⑤ 그러나 날개를 잃은 탓에 시름시름 앓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
- ⑥ 지금 그 무덤은 외도1동에 있는데 그 자손들이 벌초하러 갈 때마다 이 조상의 일을 이야기하며 아쉬워한다.

날개돋친 밀양박씨 전설을 본토형과 제주도형의 변이 과정에 있는 유형으로 보는 것은 ⑤의 내용에 주목해서이다. 본토형의 경우는 날개를 발견한 즉시 죽임을 당하거나 날개를 제거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제주도형은 날개가 제거 당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남보다 뛰어난 힘을 간직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 전설은 날개 달린 아기장수가 즉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지

55) 현길언은 <傳說의 變異와 그 意味>,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1979에서 제주도 아기장수유형 전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302-303면)

제1유형은 본토전설과 같은 형이다. 날개 제거 즉시 아기장수가 죽어버리거나 관군이 와서 장수를 제거하는 이야기다.

제2유형은 날개가 제거되어도 힘은 여전히 세었고 얼마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

제3유형은 극심한 변이를 보이는 전설이다. 아기장수 모티브는 전체 전설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적 역할만을 하는 형이다. 제주 아기장수형 전설의 특징은 이 제3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만 날개를 제거한 이유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으로써 비극적 결말이라는 전설의 속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날개 제거 후 장사의 면모를 가지고 살아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은 제주도형 아기장수전설로의 변이 과정임을 보여준다.

3.4.2.3. 오찰방

오찰방(吳察訪)은 조선조 현종(顯宗) 때에 대정고을(大靜縣)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영관(榮寬)이다.

오찰방의 아버지는 튼튼한 자식을 낳으려 해서 부인이 임신하니, 소 열 두 마리를 잡아 먹였다. 튼튼한 아들놈이 태어나려니 기대했었는데, 낳은 것은 보니 딸이었다. 아버지는 약간 서운하였다.

다음에 다시 임신이 되었다. 오찰방의 아버지는 다시 소를 잡아 부인에게 먹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시 딸을 낳을는지 모르니 아홉 마리를 잡아 먹인 것이다. 그런데 낳은 것은 보니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열 두 마리를 잡아 먹일 것을 잘못했다고 약간 서운해했다. 이 아들이 후에 찰방이 된 것이다.

소를 아홉 마리나 먹고 태어났으니, 오찰방은 어릴 때부터 힘이 셀 수밖에 없었다.

(중략)

장안에서는 제주 놈이 무서운 도둑을 잡아온다고 야단들이었다. 오찰방은 궁중으로 말을 몰아 들어가려 했다.

“이놈, 제주 놈이 말을 탄 채로 어딜 들어오려고 하나!”

호통 소리가 떨어졌다. 오찰방은 역시 좁은 데에서 난 사람이라, 마음이 졸해서 얼른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갔다.

전하(殿下)께 들어가 도둑의 모가지를 바쳤다. 전하는 상을 주기는커녕 ‘이놈을 얼른 옥에 가두라’고 명하여 하옥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무서운 도둑을 잡는 것을 보니, 그대로 두었다가는 역적을 도모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금님은 오찰 방을 옥에 가둔 후, 문초를 해 보니 제주 놈이요, 또 궁중에 들어올 때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온 것을 알았다. 임금님은 안심하였다.

“서울 놈 같으면 사형을 시킬 것인데, 제주 놈이니 큰일은 못할 것이로다. 너에게 자그마한 벼슬이나 줄 것이니, 어서 나가서 일이나 잘해라”

하고, 겨우 찰방 벼슬을 내어 주었다고 한다.

1975. 3. 4 大靜面 安城里 강문호(男) 提供⁵⁶⁾

오찰방은 아기장수유형의 전설이면서 오누이힘내기형 전설의 모티브도 가지고 있다. 오찰방 전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오찰방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임신하자 소 열두 마리를 먹여 딸을 낳고 아홉 마리를 먹여 아들을 얻었다.
- ② 오누이는 소를 많이 먹고 태어난 탓에 힘이 장사였고, 동생은 씨름판에서 당할 자가 없자 오만해졌다.
- ③ 누이가 몰래 남장을 해서 동생을 꺾어 오만한 버릇을 고쳤다.
- ④ 아버지가 아들의 거드랑이에 날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들키지 않도록 숨겼다.
- ⑤ 서울로 올라가 도둑을 잡았다.
- ⑥ 제주 놈이라 겨우 찰방 벼슬을 얻었다.

현길언의 분류에 따르면 오찰방 전설은 제주도 아기장수유형 설화의 변이 단계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형태이면서 제주도 전설의 특성을 확연히 보여주는 전설이다. 오찰방 전설에서는 거식성(巨食性)이 장사를 임신했을 때 그

56)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77, 83-88면.

어머니가 소를 열두 마리, 아홉 마리 먹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식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은 괴력을 지니게 된다. 거식성(巨食性)이 비범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설의 후반부에서는 오찰방이 벼슬하게된 경위를 서술하고 있다. 제주도 농이라 임금이 두려움을 거두고 찰방 벼슬을 얻게 된 데에서 육지에 대한 제주도 사람들의 콤플렉스를 읽어 낼 수 있다.

IV.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

4.1. 거인신화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

선문대할망과 같은 거인설화에서는 거식성(巨食性)의 면모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3.1.1.의 자료는 선문대할망의 거인성의 회화화된 사례이다. 거인설화의 회화하는 거인신격의 신성성이 사라지는 단계에 나타난 변모의 일단이라 할 수 있다.⁵⁷⁾ 거인설화에서 大衣나 大食話素가 회화화의 시작단계라고 한다면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선문대할망은 거인신격을 지니고 지형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닌 신화적인 존재이지만 제주도설화에서의 선문대할망은 매우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다. 그것은 3.1.2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명주 100통을 채우지 못해 속옷을 만들지 못하자 다리 놓는 것을 중단한 점에서 그러하다. 3.1.1.에서 거근의 면모를 보이며 회화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3.1.2.에서는 거인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무명이 부족해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놓이지 못하게 되는 데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넉넉하지 못한 삶이 반영되었다. 또, 제주도 사람들의 육지를 지향하는 마음도 읽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절해고도라는 현실에 대한 한계의식이 설화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⁵⁸⁾ 선문대할망에는 그러한 제주도 사람들의 절망적인 현실이

57) 권태효, 앞의 논문, 72면.

58) <제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되었던 사연>, <<제주설화집성>>이라는 전설이 있다. 이 전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제주도에 어떤 부자(父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 멀리 고기

나타나 있다.

소재영⁵⁹⁾은 선문대할망 신화가 제주의 모든 지형물들을 설명하고 있다⁶⁰⁾고 하면서 이 신화를 제주만이 지닌 특유의 거인설화라고 하였다. 육지설화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는데 육지에 비하여 선문대할망은 여성신화임이 특징적이다.

옛날 한 거인이 있었다. 그의 평생 소원은 한 번이라도 옷을 해 입는 것이었다. 그는 항상 나뭇잎으로 음부만을 가릴 정도였다. 거인은 왕에게 이 원을 호소했다. 왕도 그 청을 들어 일년간의 삼남 공포 전부를 거인에게 주었다. 그는 그것으로 옷을 해 입고 너무 좋아서 문경새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런데 삼남지방이 모두 그 옷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었다. 농사가 말이 아니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그를 추방하였다. 거인은 만주지방으로 달아났으나 배가 고파 흙을 파 먹었다. 배는 불렀으나 목이 말랐다. 그래서 바닷물을 들이켰다 그만 설사가 나 그 배설물이 우리의 강 산이 되었다고 한다.⁶¹⁾

잡이 갔다가 태풍을 만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 시신마저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렸고, 아들만 겨우 살아나왔다. 그 아들은 다시는 바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서울로 장사길에 나섰다. 그러나 모든 게 뜻대로 되지만은 않아 서울에서 동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다행하게도 청나라를 왕래하는 진상선의 선원이 되었다. 어느 날에는 청나라 궁실로 팔려가는 처녀들을 싣고 가다가 한 처녀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처녀는 궁실로 들어간 후, 황제로부터 사랑을 받던 중 왕자를 낳고 말았다. 그 왕자는 바로 제주 사람이 낳은 아기였다. 그 왕자는 자라서 청나라 황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기잡이 갔다가 바다에서 죽은 할아버지가 바다 속 명당자리에 안장되었기 때문이다.”

이 설화는 육지에 대해서 주변적 성격을 지니고 육지를 지향하던 제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유했던 전설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본토를 넘어선 대국의 황제가 제주도 사람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심리적인 현실극복의 방안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59) 소재영, <濟州지역 說話 文學의 比較 研究>, <<송실어문>>11, 1994, 11면.

60) 장주근, <<韓國의 神話>>, 成文閣, 1961.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함.

61) 손진태, <<조선민담집>>, 향토연구소, 1930, 20면.

이 설화에 나타난 거인의 경우도 삼남지방의 공포를 전부 모아 옷을 만들어 입는 大衣화소를 보인다. 그런데 특별히 공포를 모아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사실이 선문대할망과 비교할 만하다. 선문대할망의 경우는 무명 100통에서 1통이 부족하여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한다. 이것은 선문대할망이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신화적 공간이 제주도라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적인 장애 때문에 지향점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신화에 반영된 것이다. 육지에 비해 제주도 사람들이 갖는 일종의 결핍의식이 신화에서는 무명의 부족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육지에 닿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에 머무르게 된다.

선문대할망처럼 여성이 신화의 주인공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에서 제주도 여성이 갖는 진취적이고 활달한 기질을 찾아 볼 수 있다. 제주도 여성의 男丁的 기질⁶²⁾이 설화에 반영됨으로써 여성이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설화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여자들도 바다라는 공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4.2. 당본풀이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

소재영, <濟州地域 說話 文學의 比較 研究>, <<승실어문>>, 1994, 11면에서 재인용.

- 62) 서경립, <제주신화와 여성의 위상>, <<법과정책>>4, 제주대학교, 1998.에서는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인 <세경본풀이>를 연구하면서 주인공의 男丁的 기질과 활달하고 개방적 성격, 內外法에 얽매이지 않는 평등의식, 강한 책임감 속에서의 적극성, 성취욕을 제주 여인상으로 보았다.

일차적으로 거식성(巨食性)이 뜻하는 바는, 거식성(巨食性)을 보이는 존재가 갖는 비범한 능력이다. 육식성을 상징하는 소천국의 거식성(巨食性)은 아들신의 그것에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아들신의 추방과 귀환 과정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그러한 능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당본풀이의 거식성(巨食性)은 단순히 뛰어난 영웅적 능력을 담보하는 장치로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당본풀이가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거식성(巨食性)은 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당본풀이에 나타나는 여신과 남신의 갈등은 미식과 육식이라는 식성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미식성을 가진 여신에 의해 육식성을 가진 남신이 추방되는 것으로 설정된 바, 이것은 수렵중심의 사회에서 농경중심의 사회로의 변화의 과정에서 겪는 진통을 나타낸다.

소천국은 수렵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신과의 결합으로 시작된 미식에서 본디의 육식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거식성(巨食性)을 보인다. 그러나 아들신은 본래부터 거식성(巨食性)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수렵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남신이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단순히 수렵신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축신으로서의 농경신적 면모를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식성(巨食性)은 바로 농경신적인 능력이다. 아들신의 영웅담을 통해 드러나는 비범한 능력은 당신의 신격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화적 장치이다. 아들신이 제주도에 입도하면서 부신이 도망하여 좌정하게 되는 것은 수렵신격을 목축신격이 대체하는 양상이다.

부신과 아들신이 갖는 거식성(巨食性)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또 하나, 당신본풀이는 제주도 사람들의 역사와 함께 한다. 그것은 곧 마을

수호신의 내력담이면서 제의를 통해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그들의 궁핍한 삶을 당신본풀이의 신화성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⁶³⁾

특히 당신본풀이에 나타나는 거식성(巨食性)은 제주도 사람들이 가진 허기와 좌절에 대한 저항의 방식이다. 궤네깃도가 용왕국에 당도하여 ‘내 국(國)은 소국(小國)이라도 돼[豚]도 전머리를 먹고 쇠[牛]도 전머리를 먹고 한다.’고 한 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처한 현실의 반영이며 한편으로 현실의 극복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당신본풀이에 나타나는 거식성(巨食性)은 제주도 사람들이 처한 현실의 극명한 반영임과 동시에 그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저항의 방편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4.3. 전설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

전설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힘 센 노비장사유형’ 전설과 ‘아기장사유형’ 전설을 살펴보았다. 전설에서 나타나는 거식성(巨食性)도 기본적으로는 비범한 장사들의 능력을 나타낸다.

노비장사유형 전설에는 거식성(巨食性)을 지니고 괴력을 지닌 노비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거식성(巨食性)으로 인해 늘 허기진 배를 주리고 살아가다가

63)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65면은 “제주도 당신본풀이는 추방된 신으로서의 원망과 허기에 눌려 살아온 신들의 일생이 나타나있다. 이들 갈등과 원망의 신들은 부락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아 구명도식하면서 그 값으로 부락을 보호하고 주관하는 공생동거(共生同居)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제주도 당신의 한스런 일생은 바로 제주 사람들의 정신적 상황과 현실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들은 제의의 본풀이를 매개로 하여 자기를 인식하고 정신적으로 자신의 비극을 극복하는 체험을 갖게 된다. 그러기에 당신본풀이는 바로 제주사람들의 존재 양식이다.”라고 하였다.

결국 추방당하여 도둑이 되어 잡혀 죽거나, 굶어 죽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종이라는 신분도 이들을 억압받고 소외 받는 계층으로 한정하여 불운한 생을 맞게 한다. 장사이며 대식가라는 이 비범성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갈등의 요인이 된다.⁶⁴⁾

주인공의 신분이 노비로 설정 돼 있지만 결국 그것은 넉넉지 못한 제주도 사람들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노비들이 보이는 거식성(巨食性)은 가난으로 인해 배불리 먹지 못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소망의 반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통정 장군이 백성을 시켜 토성을 쌓을 때는 몹시 흉년이었다 한다. 그래서 역군들이 배가고파 인분(人糞)을 먹었다. 자기가 쭈그러 앉아 똥을 싸고 돌아앉아 그것을 먹으려고 보면, 이미 옆에 있던 역군이 주워 먹어 버려 제 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한다.

1965. 2. 19 涯月面 光令里 高人勳氏 父親 제공⁶⁵⁾

특정 시기가 언급되었지만, 제주도의 궁핍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렇게 제주도에는 한 번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한 흉년이 자주 반복되면서 제주도 사람들은 가난한 생활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궁핍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이 설화적 상상력이다. 가난한 현실을 절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막산이’와 같은 주인공이 나타났으며 배부르게 먹고 싶은 욕망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식성(巨食性)을 부여하였다.

장사들은 남다른 힘을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라는 최저의 보상마

64)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186면.

65)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77, 114면.

저도 받지 못한다. 보상은커녕 추방되던가, 스스로 죽던가, 굶어 죽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라는 지역의 사회적 편협성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가난 때문이다.⁶⁶⁾ 이렇게 노비장사전설은 제주도 사람들의 가난에 대한 저항의식을 진실 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참한 최후는 그들의 현실의식이 결국 좌절하고 마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찰방 전설에서 소를 먹는 거식성(巨食性)은 비범함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현실성을 보장하는 구실을 한다. 상식을 뛰어넘는 괴력을 지닌 주인공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식성(巨食性)이라는 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오찰방 전설을 비롯한 아기장수유형 전설은 제주도 사람들이 현실 상황에 대응하여 완강히 거부하는 자세가 아니라 현실과의 화해를 통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같은 모습은 아기장수유형 전설이 본토의 유형에서 제주도의 유형으로 변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시한 전설 자료에서 살펴보듯이 제주도 전설에 나타나는 거식성(巨食性)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 제주도 사람들의 좌절과 현실에 대한 순응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66) 임홍선, <濟州道 說話에 드러난 濟州道民의 意識 研究>, <<제주교대논문집>>, 1983, 141면.

V. 결론

본고에서는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제주도 설화에서 거식성(巨食性)은 신화, 당본풀이, 전설에 고루 나타나는 요소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각각 신화, 당본풀이, 전설의 자료를 예증 삼아 각 자료에서 거식성(巨食性)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제주도 설화가 갖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화에서 거식성(巨食性)은 거인신격인 선문대할망의 거인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화소이다. 선문대할망은 지형창조의 신격을 보이기도 하는데 본 토에서는 이러한 신격으로 남성거인이 등장하는 것에 비해 여성거인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선문대할망은 육지를 지향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현실적 장애에 의한 좌절을 대변하는 대변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문대할망은 신이면서도 제주도 사람과 닮은 존재인 것이다.

당본풀이에서의 거식성(巨食性)은 일차적으로 거식성(巨食性)을 지닌 존재가 갖는 비범한 능력을 나타낸다. 비범한 영웅적 능력은 내왓당천즈또마누라 본풀이나 퀘네킷당본풀이에서 아들신의 무용담에 잘 드러난다. 당본풀이를 통해 제주사회가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거식성(巨食性)은 농경신적 능력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소천국의 거식성(巨食性)과 아들신의 거식성(巨食性)이 애초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체함으로써 가능하다. 아들신의 입도에 의한 부신의 도망은 부신이 가지고 있던 수렵신격이 목축신, 나아가 농경신의 신격으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당본풀이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은 제주도 사람들의 허기와 좌절에 대한 저항의 방식이다.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처한 궁핍한 현실을 극명히 반영함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전설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의 현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비장사 전설의 경우는 제주도민의 빈곤을 가장 잘 말해준다. 이것은 이 전설을 형성하고 향유한 사람들의 의식이 가난의 문제와 연결 돼 있기 때문이다. 가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노비장사 전설에서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의 현실인식 양상은 아기장수유형 전설에도 잘 나타난다. 비극적 결말을 맞는 본토의 전설에 비해 제주도의 아기장수유형 전설은 현실에 적응하여 살아가면서 그러한 비극성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에 의해 태생적으로 곤궁함을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제주도 사람들의 기질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살펴본 신화, 당본풀이, 전설에 각각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를 정리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설화에 나타나는 거식성(巨食性)의 의미를 요약해 보겠다.

먼저 표면적으로 거식성(巨食性)은 설화 주인공의 뛰어난 능력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이것은 신화에서 전설에 이르기까지 개별 작품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거식성(巨食性)은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은 언제나 궁핍하고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고 그러한 그들의 현실적 욕망이 거식이라는 화소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거식성(巨食性)에 의해 욕망이 좌절되는 모순된 모습을 겪기도 한다.

요컨대,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관계없이 제주도 사람들의 곤궁한 일상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제주설화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거식성(巨食性)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거식성(巨食性)의 문제를 제주도 설화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설화에서 거식성(巨食性), 나아가 식성의 문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북제주군 편, <<북제주군지>>, 북제주군, 1987.
- 서귀포시 편, <<서귀포시지>>, 서귀포시, 1988.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제주설화집성>>,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 제주도 편, <<제주도지>>1~3권, 제주도, 1993.
-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77.
-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문고, 1977.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 화경고전문학연구회, <<설화문학연구(상)·총론>>,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 화경고전문학연구회, <<설화문학연구(하)·각론>>,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 논 문 —

권태효,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7.

권태효,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8집>>, 구비문학회, 1999.

권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민속학>>, 민속학회, 1999.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전승력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9.

김현선,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바다의 세계>, 미발표.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3.

박진태, <제주도 당신본풀이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4.

소재영, <제주지역 설화 문학의 비교 연구>, <<숭실어문>>, 숭실대학교, 1994.

이혜화, <「아기장수전설」의 신고찰>, <<한국민속학>>, 민속학회, 1983.

임홍선, <제주도 설화에 드러난 제주도민의 의식 연구>, <<제주교대논문집>>, 제주교육대학교, 1983.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9.

현길언, <전설의 변이와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1979.

<Abstract>

**A study on meaning of Eating to much which is
appeared in Che-Ju's narratives
-such as a Legend, dangbonpuri and myth -**

**Park, Jong-Kuk
Majoring in the Edu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Che-Ju is a place where a narrative is handed down by tradition. Che-Ju kept, transmitted and had its own peculiar form because of a geographical location and special surroundings.

Generally, narratives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which are a myth, legend and folklore.

Che-ju has transmitted Bonpuri and Sunmundae Halmang which is a giant myth for one of the parts of the myth and lots of legends about history, character and faith exist in Che-Ju.

I would like to discuss and introduce about Eating too much which is one of motives of these narratives in this thesis. Although other

terminology are possible to use a meaning as eating some food too much, the significance of Eating too much in the body of this text not only includes a physical meaning, but also describes some role.

I considered and researched various meaning of Eating too much by many materials such as myths, legends, Dangbonpuri and found a point of sameness from these materials.

Eating too much in the narratives of Che-Ju commonly means a special ability of a hero or heroine who is the principal male or female character in a story, but it is not only this meaning.

When we could understand Che-Ju's peculiar surroundings or environment and a historical background, we would have a chance to get the answer.

Individuals of Che-Ju always had destitute life and starved because of infertile environment, the historical sufferings of the Korean and distinctness from the mainland.

Eating too much in Che-Ju's narratives describes these life-style of individuals of Che-Ju.

It is not only reflection of destitute life, but also reflection of their strong volition to conquer hardship or difficulty of their living.

In this thesis by considering and researching many materials, I confirmed that the meaning of Eating too much is simply not only reflection of the realities of life, but also shows us an attitude of mind about life to conquer their hard situation.